

시민권익위 출범...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첫 시험대

7~9명 전문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달까지 건립 공론화 방식 결정
객관성 위해 특정 의견 인사 제외
정책제안 100일 내 해법 자문도

앞으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 방식을 정하고, 시민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시민권익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7~9명의 전문가 그룹을 꾸려 도시철도 2호선을 땅을 얹고 파 절토를 놓는 저성도로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대 시민 소통 플랫폼인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교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8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권익위원회와 별개 위원회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 위원으로 법조인, 조사통계 전문가, 갈등관리 업무 경험자, 언론인 등 전문가 그룹 7~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가 그룹이 시민단체의 공론화 방식을 포함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론화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방식에서 특정 의견에 치우친 인사를 배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인사나 교육부 등의 전문가



시민권익위 출범식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이 7일 오전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렸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최영태 교수 등 각급 기관 부기관장,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익위원들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가 초청도 고려한다.

사실상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방식의 결정권이 이용섭 시장에게서 시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간 뒤 다시 전문가 그룹으로 미뤄진 셈이다.

최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지하철 저성도로 방식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섭 시장, 최영태 공동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 등 35명의 위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섭 시장의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한 100일 내 해법 모색의 자문을 하게 된다.

현재 각종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은 광주시 각급 부서로 배부돼 100일 내 해법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로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분과위원회 체제와 함께 심의와 의결 기능을 갖춰 고충민원 유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고에서부터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험의 날'을 운영해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미관광장 주차장 건립 '제자리' 광주도시공사, 업체와 협약 해지

광주도시공사가 서구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건립사업 운영 주체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P 업체가 협약에 제시한 2014년 말까지 지상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한 데다 지난달까지 요구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 해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달 중에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P 업체와의 협약 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995년 참여업체가 미관광장 지하에 10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년 사용 후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같은 해 지역 증견 건설사 3곳과 첫 협약을 한 이후 3차례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주차규모를 지상과 지하 각각 절반으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준공 기한도 애초 1997년에서 2014년 말로 연기됐다. 525면의 지하주차장은 2006년 완공됐다.

이후 2010년 사업 주체가 P 업체로 변경되면서 도시공사는 재협약을 맺었다.

협약이 해지되면 애초 지상 주차장 땅값을 치르고 협약을 맺은 P 업체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적 공방도 우려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코이카 광주사무소' 추진

해외봉사 확대 의지...이용섭 시장, 관련 실·국에 지시

광주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광주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이카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중인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이이른바 '광주정신'의 뿌리인 나눔의 정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코이카와 함께 ODA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 달라"고 기호조정실 등 관련 실·국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는 광주정신의 나눔을 위해 해외봉사와 초청연수사업 등 국제적 지원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광주는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원조 전문기관인 코이카의 전문성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관련 실·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올해 중에 코이카 광주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코이카 이미지 이사장(전 국회

의원)과 이런 취지에 함께 공감했고 어제 방문한 송진호 상임이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약 '윗선'에서 안된다면, 그것은 내가 풀테니 실무적으로 연말 안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전문 인력들의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이나 해외봉사단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광주에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연수와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991년 창립된 코이카는 현재 44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 2곳과 월드프렌즈 5개국에 사무소를 운영중이다. 국내에는 서울본부 외에 부산에 유일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 인천, 대구, 강원, 경기, 전북, 제주 등 6곳에 광역단위 센터를 두고 있다.

2016년 한해에만 교육과 보건으로,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긴급구호 등 64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국은 아시아가 2500억원으로 3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천은사·장성호...전남 관광지 138곳 와이파이망 구축

지리산온천랜드·천은사 등 전남지역 관광지 138곳에 연말까지 무료 와이파이망이 구축된다.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국비 4억3000만원, 지방비 13억5800만원, SK텔레콤 부담금 17억8800만원 등 총 36억 원을 투입해 구례 야생화테마랜드·지리산온천랜드·천은사 등 관광지 6곳, 장성호·진도 아리랑마을 등 관광지 62곳에 연말까지 와이파이망을 설치한다.

또 여수 민속전시관·나주 배박물관 등 박물관 23

곳과 도시공원 16곳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모두 2483곳이 공공 와이파이 설치 대상지로 분류됐다.

현재 관광지 144곳, 공공기관 298곳, 복지시설 251곳, 교통시설 118곳, 문화시설 40곳 등 모두 851곳(34.2%)이 설치돼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문형석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전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부담없이 인터넷을 즐기도록 해 오감만족 문화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정무부지사에 윤병태 기재부 심의관 유력

공직인 전남도 정무부지사에 나주 출신 윤병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임명이 유력해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무부지사 개방형 공모에 지원한 2명 중 윤 심의관만 전남 선발시험위원회 면접에 응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이 면접을 포기하면서 윤 심의관이 후보자로 남게 됐다.

윤 심의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면 김영록 전남지사가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윤 심의관은 기획재정부 민영화과장, 교육과학에

산과장, 재정제도과장 등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월 초 우기종 전 부지사 사직 후 공석이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개방형 직위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정무부지사는 사실상 '경제부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남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도민소통실장 임명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명 지원 가운데 2명이 면접을 통과해 김 지사에게 복수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제4회 너릿재 옛길 8·15 광복절기념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8년 8월 12일(일) 오전 8시 출발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주최 | 광주일보 · 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 · 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 화순군의회 · 화순군체육회 광주광역시 동구

Star Art Museum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소아르미술관